

### 3/11(금) 사사기 8-10장 가나안 방식의 리더십

사사들의 도덕적, 영적 상태는 시대를 반영합니다.

전쟁에서 승리한 백성들은 <구원자 기드온>을 바라봅니다.

기드온 역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우두머리 행세를 합니다.

백성들은 기드온 가문을 왕으로 옹립하려 합니다(8:22).

기드온은 자신이 답한 모범답안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(8:23).

백성들의 순종을 원했고, 왕의 상징과 왕의 재물을 원했으며(8:24,26),

왕실처럼 가문을 이루고 가나안 여인(세겜)을 첩으로 맞았습니다.

사이에서 난 아들을 <아비멜렉>이라 불렀습니다(9:2,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).

자기 집에 <거주 죠> (왕이 보좌에 앉다)하며 남은 생을 왕 노릇 했습니다.

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어 우상 숭배의 빌미를 제공합니다.

실로에 여호와의 법궤를 두었듯 에봇을 자기 집에 두게 합니다(8:27).

순종하며 오브라 제단을 혈던 기드온은 이제 없습니다(6:25-32).

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식 권력과 종교에 푹 젖었습니다.

왕이 되려는 아비멜렉의 행동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(9장).

왕 같은 아버지 아래서 가나안적으로 성장한 이의 자연스런 양태입니다.

그는 권력을 얻기 위해 <가나안 방식>을 적극 활용합니다(9:1-5).

편을 가르고 사람을 고용하여 조직적이고 잔혹한 살인을 벌입니다.

<아버지의 집안>과 <어머니의 집안>을 원수로 만듭니다.

모세가 왜 가나안과의 혼인을 경고하였는지(출34:15-16, 신7:3-4 참고),

왜 하나님 방식으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(신17:14-20).

요담의 비유는 자질 있는 자가 오히려 낮추며 자리를 마다하고,

자격 없는 자들은 기어코 자리를 얻어내는 시대상을 담고 있습니다(9:8-19).

돌라와 아일의 평화시기로 한 숨을 돌린 사사이야기는

입다 시대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갑니다(10:6-12:12).

나와 공동체는 <하나님 방식>으로 삽니까, <가나안 방식>으로 삽니까?

❶ 입으로는 신앙을, 행동으로는 <가나안 방식>을 따르지 않습니까?

❷ 나와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는 지도자의 자질(자격)은 어느 쪽에 더 부합합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사사기 8-10장